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창립16주년! 호산나 기념음악회 준비

모테트, 세종문화회관서 정기음악회 성황리에 가져



모테트 정기음악회가 6월1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시온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는 박치용집사가 지휘하는 모테트 합창단은 맑고 깨끗한 음색 정제된 화음 깊이있는 음악으로 순수합창의 진수를 선보이며 최고 수준의 합창단으로 평가받아왔고 진정한 프로로서의 바른 정신과 수준 높은 합창음악을 통해 한국의 음악문화와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지휘자 박치용과 열정적인 젊은 음악가들에 의해 1989년 창단 되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의 등장은 자생적 직업 연주단체가 없었던 우리의 합창계와 음악 사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고 한국의 합창음악과 음악계 전체에 미래를 향

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평가받아왔다. 자연스런 발성과 풍부한 배음 환상적인 하모니로 대변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의 맑고 깊은 울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합창단의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까지 느끼게 한다. 그리고 깊이 있고 영감에 가득 찬 음악은 인간의 내면을 위로하며 영혼까지 치유하는 음악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한다. 또한 파트간의 균형과 조화, 단원들의 일체감 넘치는 리듬과 감정의 표출은 합창단의 풍부한 음악성과 지휘자와 모든 단원이 합창단의 정신과 음악적 이상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 음악계와 사회에 미래를 향한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의 성실성과 음악적 능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아왔으며 특히 함께 협연했던 수많은 국내외 유명음악인들로부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수준의 합창단이라는 찬사들을 들어오고 있다.

권오승장로, '법을 통한 아시아 선교' 위해 연구소 설립하여

세계는 블록화 되어가고 있으나 아시아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여 많은 선교사나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아시아의 등대가 되길 위하여, 우리 교회 권오승 장로(서울법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교수들이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관)를 비롯한 법조 실무자들과 힘을 합쳐서 설립한 아시아법연구소(Center for Asian Law)가 6월 18일(금) 오후 6:30부터 9시까지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으며, (2면에서 계속)

청년부

여름 선교여행지 확정

청년부는 이번 여름 주님의교회 의료 선교부와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 필요인원은 30명가량이다. 이를 위해 4부 예배시간과 예배 후 모임 시간에 임원들과 운은성목사의 광고가 있었고 사람들의 참여를 권유했다. 지금까지 청년부에서는 자체적인 비전트립을 계획해 왔으나 캄보디아의 어려운 상황과 의료선교팀의 헌신적인 사역에 어린 청년들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캄보디아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적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창립기념음악회 수요저녁 7시30분



창립16주년 기념 음악예배를 준비하느라 호산나 찬양대는 지금 한창 연습에 여념이 없다. 머리 색깔은 거의 모든 대원들이 담임목사님과 견줄만하고, 물론 흰색이지만, 받은 은혜가 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순한 양들이다. (2면에서 계속)

초등부월례회

초등부 여름수련회를 협의

초등부는 6월 6일 월례회를 갖고 여름수련회준비와 교사 간 친목도모의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기도와 찬양 중심의 월례회에서 벗어나 오찬을 즐기며 가볍고 유익한 교사 간 대화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별히 초등부 여름수련회의 일정(양평관 광농원, 7/29-7/31)을 협의하면서 여름수련회의 주제와 각종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향후 준비사항 등 여름수련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며 공유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수련회 준비의 일환으로 파이디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강습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배우고 익혀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총 23명이 참석한 이번 월례회는 언제나처럼 웃음이 함께했으며 모든 교사가 조화를 이룬 자리였다.

교회학교 프로그램 어와나(Awana)를 소개합니다

어와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어와나는 약 50년의 역사 동안 연구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서 세계 11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은

미국 내에서만 약 3만 클럽으로 발전했고 60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주 어와나 클럽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약 40여개의 교회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학교를 도와 많은 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와나의 목적은 첫째, HOPE! -어린이와 청

소년들의 구원(AWANA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로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VISION!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훈련(AWANA는 전 세계의 교회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

하고 제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와나의 강조점은 성경암송에 있습니다. 1년에 약 90구절의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어와나의 시간 구성은, 게임40분, 핸드북40분, 교제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단결력을 높여주는 단복을 착용한 아이들은, 게임전기예양식과 선서로 매 시간 모임을 시작하며, 잘 기획되고 준비된 신나는 게임을 40분 동안 합니다. 게임에서 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정정당당함과 동기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2면에서 계속)

미사리 천연 잔디 구장에서 한껏 뛰놀며

지난 주일(13일) 오후 1시부터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이 미사리 천연 잔디 구장에서 훈련을 가졌다. 중등부 초등부팀은 물론 이 용수 집사를 비롯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코치들 포함해 100여명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과란 잔디 구장을 누볐다. 조금은 더운 날씨였지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잔디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들은 지칠 줄 몰랐다. 무더운 햇볕을 피해 모여 앉아 자녀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학부모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교역자들이 한데 어울려 미니게임을 하기도 했다.



육군훈련소사역팀 고은경 자매 수기

Time To Go Home! (집으로 돌아갈 때)

집 생각이 언제 가장 간절했었는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그리고 한국 남자의 경우 군에 입대했을 때 가장 집이 그리워진다고 한다. 심신이 약해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버림받음과 같은 처절한 고독감을 느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계신 '집'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게 된다. 논산훈련소라 부르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는 수천명의 이러한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어색하도록 짧게 깎은 머리에, 보는 이로 하여금 6월의 찌는 더위를 더 덥게 만드는 겨울용 긴팔 전투복, 통풍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진흙 묻은 고무장화로 복장하고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줄 맞춰 교회 앞 마당으로 들어서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무엇이 저 많은 지친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일까? 저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곳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가? 옛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지쳐 보이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일상이란 방패로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그들이 들을 차례라고! 가족 모두가 포기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혼자서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기다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배인 작은 음성을, 그 어리석은 정도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계신 모습을, 절대로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고집 섞인 애처로운 눈동자를 그들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그 따뜻한 체온에 지난 설움이 다 풀려버리는 용서와 화해의 만남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했고 또한 이 아름다운 신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1면에 이어서)

교회학교 프로그램 어와나(Awana)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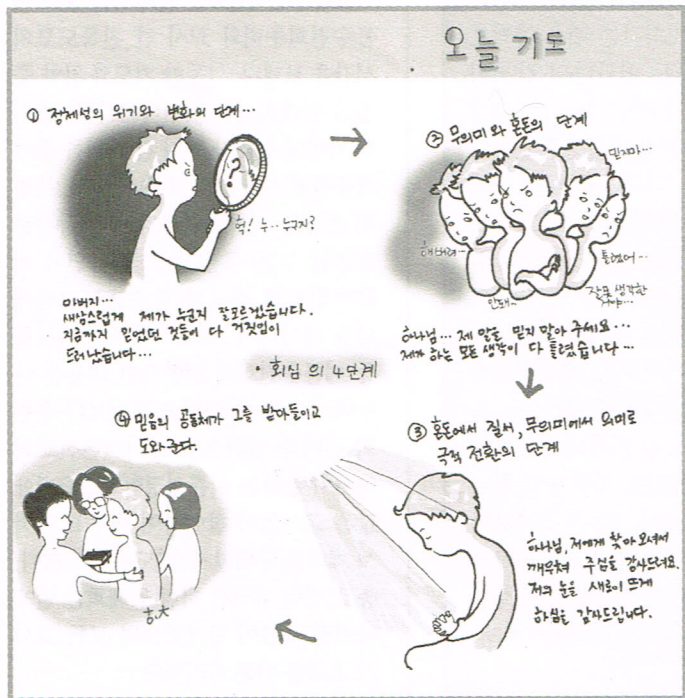
어와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핸드북 시간을 통해서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상담도 받습니다. 마지막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듣고, 그날 활동에 대한 개인 및 팀 시상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은 아이들이 단 한순간도 지루해 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진행이 되며, 그 모든 순서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전하게 진행됩니다. AWANA를 담당하게 된 저로서는 이 클럽을 소개하게 된 것이 무한한 기쁨입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고학력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으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성숙해 가도록 아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요?

필수 양육 과정인 제자의 삶을 마치며

필수양육과정인 제자의 삶은 3월부터 시작하여 15주가 되었다. 교제는 '제자도' (데이빗 왓슨)와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이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면 "지난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지만,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고운 모양과 업적을 내고자 고군분투하셨습니까?"라는 목사님의 인사와 도전을 함께 받는다. 교재로 공부하다가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서너번의 설교도 감동적이었다. 요:2:1-11 가나의 혼인잔치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목사님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포도주(성령)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는 것이 제자의 삶 첫 걸음임을 알았다. 제자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인격적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꾸는 성품 혁명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1면에 이어서)

창립기념음악회 수요저녁 7시30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모인 대원들, 영광을 영감으로 발음 한다고 박영주집사로 부터 비록 야단은 맞지만 40년 전에는 꿈 많고 아름다웠던 소년 소녀들, 세상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다 실감한 호산나 식구들이다. 우린 한 때 교만에 빠졌었다. 새벽 5시에 집을 떠나 목이 잠긴 상태에서 연습하고 1부 예배에 찬양 드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교우들의 가슴속이

정 할거라는 착각.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주님께 바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자각하는 소리들이 모여서 이번 창립예배를 기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연습량도 대폭으로 늘었다. 이번 기념 예배 때는 온 교우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순간을 함께 하기를 갈망하며 아울러 그 동안 마음은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한 교우들의 참여를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환영한다.

(정찬구 기자 cms153@komet.net)

“보고 싶은 모든 책을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구요?”

다음은 교회서점운영팀장을 맡

고 있는 김영중 안수집사의 말이다. “예, 주일날 친교실에 오시면 양서가 한 2,000권 정도 준비되어 있구요. 구입하시고 싶은 책을 정확한 책이름과 저자이름만 알려 주시면 다음 주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동용 도서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들르셔서 책도 보시고 서점 운영에 대해 도움말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끈끈한 사랑으로 가득한 구역 모임은 외로움을 이기는 힘

6교구 4구역의 사랑 나누기

6교구 4구역은 다른 구역과 다른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구역원이 매월 돌아가며 구역장 사역을 한다. 서로 구역장 역할을 감당해 봄으로써 구역장의 중요성과 고충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돌아가며 구역장을 경험해보면 구역장으로 섬기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구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은 커야 함에 모두들 공감한다고 말한다. 둘째, 매월 셋째 주에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 주방봉사를 통해 구역 가족끼리 봉사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매월 1회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

랑을 느끼기 위해 야유회를 떠난다. 이때 다른 곳으로 잠시(?) 떠나 있는 옛 가족을 초청하여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넷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서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나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각 가정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일만원 이하)을 추첨을 통해 서로 교환함으로써 한 가족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6교구 4구역은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이끌고 있는 권찰의 헌신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권찰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권서(권찰서방)'라는 직분을 특별히 마련하기

도 했다고 한다. 권서의 절대적 내조를 유도하여 권찰의 수고를 다소나마 덜어주며 부부간의 금슬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6교구 4구역의 사랑 나누기였다. 다른 구역의 사랑나누기는 어떤 멋진 모습일지 궁금하다. 앞으로 함줄함을 통해 다른 구역들도 구역 소식을 많이 소개해주면 유익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권오승장로, '법을 통한 아시아 선교' 위해 연구소 설립하여

19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법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일본, 중국 및 대만의 학자들을 초빙하여 "아시아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법과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법률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경제개발과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법제 운영의 경험을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제공하려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주멤버들은 모두 기독교인들로서 장차 '법을 통한 아시아선교'에 비전을 갖고 있다.



권사회월례회

'나'의 그리스도인됨과 권사됨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

권사회는 6월 15일(화) 11시 5층 찬양대연습실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예배 설교 말씀에서 정희성 목사는 딤후 1:8-14절 말씀으로 '부르심의 자리'의 제목으로 권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요약해 해본다.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목적에 이끄러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처럼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사용되고 쓰여져야 한다. '나'의 그리스도인됨과 권사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모

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난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이겨내는 용기와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둘째, 나를 지키시는 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경험해 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늘 '나'를 권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이끄러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며 썩은 것을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의교회 권사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해보는 시간이었다.

예배 후 권사직분으로는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이영자 장로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축복송을 부르며 정성어린 마음을 전했다. 우일강 권사는 부군 되시는 권오승 장로의 법을 통한 선교일과 곧 열릴 국제심포지엄을 앞두고 기도로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지난 달에 장모가 되는 이정원 권사와 이지연 권사는 모인 모두에게 포만감 넘치는 맛있는 점심대접을 함으로 기쁜 마음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권사들은 분당재생병원에 안치된 박두리권사의 동생 박상철성도의 입관에 배에 참석, 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함줄함을 편집부 취재기자 프로필



담당목사 **이창현**
chylee@korea.net
011-466-4736



편집부장 **이영남**
ynlee@khu.ac.kr
017-360-0831



김홍용 기자
ceo@hyoilbooks.com
011-272-6643



소옥민 기자
odenamu@hanmail.net
016-781-7000



정찬구 기자
cms153@kornet.net
011-9953-3524



신지민 기자
saga1978@hanmail.net
018-294-1926



허진 기자
hacchi@empal.com
019-396-8911



이기원 기자
hope@donga.com
011-9377-8352



이정애 기자
kinddear@hanmail.net

함줄함을 기자는
탁월한 성격
원만한 대화
정확한 기사
확실한 취재만을
생각합니다.

교회신문 함줄함들은
주님의교회 교우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신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줄함기자들의 교회행사 취재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소식

1. 피택자 예비모임

임직식 준비를 위한 피택자 예비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실(3층)에서 있습니다.

2. 창립16주년 기념음악회

창립16주년 기념음악회가 6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호산나찬양대 주관으로 열립니다.

3. 창립기념주일 및 임직식

다음주일(6월27일)은 창립기념주일이며 이재철 목사가 설교합니다. 3부예배시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10명, 안수집사 14명, 권사11명이 임직하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로임직: 김경빈 김성배 김완중 김재현 류달현 박호길 엄주청 이영자 이지화 최상용

집사임직: 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신정웅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유철 최종만 최종명

권사임직: 강경원 고선옥 고준순 김금숙 김명애 김선례 유은숙 이승숙 이종은 최영순 한영미

4. 청소년 세례입교식

청소년 세례·입교예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 새가족환영의날

2004년 등록한 새가족을 위한 "새가족환영의날" 행사가 7월 3일(토) 오후 5시 30분에 교회식당(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6. 제3회 정신동문 찬양의밤

제3회 정신 동문 찬양의밤 행사가 6월 21

일(월)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7. 모테트 다큐 21일밤 KBS에서 방영

KBS1TV 「TV문화지대-음악속으로」/ 6월 21일(월) 밤 11시35분 <서울모테트합창단>과 <합창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 됩니다. 「TV문화지대-음악속으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입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의 15년 역사와 합창단의 음악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고 합창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박치용 지휘자의 해설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56회 정기연주회 리허설과 연주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8. 새가족환영의날 안내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하여 주님의 가족이 된 새가족을 초대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7월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교회 지하식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뷔페식사와 이어지는 특별행사를 통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9. 자원봉사자모집

주일 새벽에 식당봉사할 남자성도와(문의 강은애 권사 016-281-4390), 꿈나무공부방 피아노 교사 자원봉사자 4명(문의 한정웅 집사 010-8001-1144) 모집합니다. 함줄함울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줄함울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또한 영상미디어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 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창현 목사 011-466-4736)

교구수련회안내

1교구 수련회/7.30(금)-31(토)/남양주 진광전원교회

2교구 수련회/7.2(금)-3(토)/포천 광림세미나하우스

신앙수련과 교구식구간의 친교에 목적을 두어 짧지만 알찬 이틀간의 수련회를 계획하며, 교구식구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교구 수련회/7.16(금)-17(토)/양평자연농원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함께 부를 주체찬송은 공모중에 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신 분은 교구목사(019-229-

1590)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4교구 수련회/7.23(금)-24(토)/포천 염광수련원

일산과 강북지역에 널리 퍼져있어 구역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교구특성을 살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역장들은 참가 가정을 파악하여 6월 마지막주일까지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포천염광수련원은 1년 전에 지어진 최신시설이며, 1급수의 계곡이 있고 신복 온천(위터피아)가 있어서 가족휴가로도 매우 좋은 장소이다.

5교구 수련회/7.16(금)-17(토)/양평 십자수기도원

6교구 수련회/7.18(주)-19(월)/수동수양관

7교구 수련회/7.16(금)-17(토)/남양주 진광전원교회

❖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 서	일 정	장 소
영아부	8월 15일	주님의교회
유아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치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년부	8월 15~17일	경기도 안성 엄마 농장
초등부	7월 29~31일	경기도 양평 관광 농원
소년부	7월 22~24일	경기도 중부 수련원
중등부	7월 25~27일	강원도 화천 광덕 그린 농원
고등부	8월 1~4일	강원도 홍천 허브 농장
썅트네	8월 22일	주님의교회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은 cafe.daum.net / PCLBOOKS 로 해주세요.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썅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 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